

00, 000000 00

000000 000000 <0000 2017>

'0000'000 00 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0 000 00 2005000
0000 00 00 000 000 0000 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 000 00
00 00000 0000000 00 000000 00000 00000. 0000000 0000000000 00000 000 0
0000 000000, 00 000 00 0 30 00 000000 00 00000, 000 000 10 00 000,
000000 000 00 000000 000 00000 0000 00 00 000 000 00000 00. ([0000000
0000_00000000000000 00 ▶](#))

인천문화재단 인천미술은행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BankArt

New Collection 2017

고제민 Ko Je-Min
곽이브 Kwak Eve
김순임 Kim Soon-Im
김종오 Kim Jong-Oh
박상희 Park Sang-Hee
윤대희 Yoon Dae-Hee
이기본 Lee Ki-Bon
이의재 Lee Eui-Jae
이채영 Lee Chae-Young
이 탈 Lee Tal
정수모 Chung Soo-Mo
조문희 Cho Moon-Hee
조은정 Cho Eun-Joung
하임성 Ha Im-Sung
홍윤표 Hong Yun-Pyo

2018. 3. 15 - 3. 29

인천아트플랫폼 E1창고갤러리

Incheon Art Platform Warehouse gallery

오프닝 2018. 3. 15. 목 16시

인천문화재단 인천미술은행 <신소장품 2017> 전시 포스터

2017년 인천미술은행 <신소장품 2017> 전시 포스터, 2018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E1창고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전시 기간 동안 오프닝 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전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 관람객은 1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사항은 인천미술은행 (032-810-11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희 <하버파크 호텔>
72x72cm, 캔버스 위에 시트지, 아크릴, 2013

이 작품은 박상희 작가가 2013년에 제작한 아크릴화이다. <하버파크 호텔>은 현대적인 호텔 내부를 배경으로,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닷가와 배를 주제로 그려졌다. 화면은 따뜻한 색조와 부드러운 붓질로 채워져 있으며, 실내의 밝은 조명과 바깥의 자연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은 캔버스 위에 시트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홍윤표 <삼>
80.3×116.7cm, 캔버스 위에 유채, 1986

이 작품은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인 민중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홍윤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민중미술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그의 작품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민중의 삶을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1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삼' 전시에서 선보였으며, 당시 미술계와 대중 모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홍윤표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며, 그의 예술적 역량과 사회적 참여의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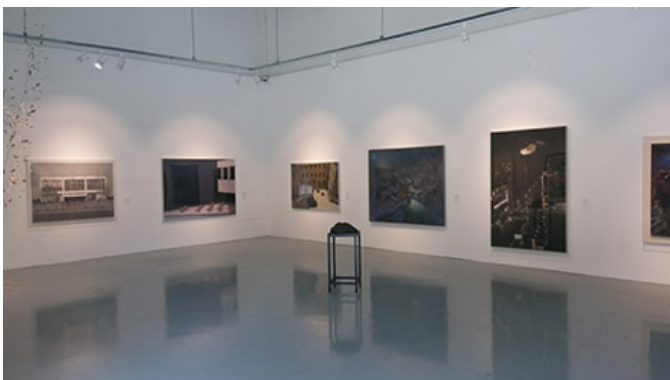
정수모 <대지의 소리>
35×46×15cm, 브론즈 캐스팅, 2015

정수모는 1980년대 말부터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지의 소리'라는 작품을 통해 자연의 질서와 리듬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100, 6000 등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새겨 넣은 형태로,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수모는 조각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람자에게 강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 정수모는 조각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람자에게 강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



김순임 <굴 땅>
가변 크기, 만석동 굴껍질, 무명실, 와이어, 자석, 2017

본 전시에서는 김순임 작가의 <굴 땅 2017> 전시를 소개합니다. 김순임 작가는 <굴 땅>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관람객 여러분께, [Oyster Land](#) 전시 ▶) 김순임 작가는 굴껍질, 무명실, 와이어, 자석을 사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김순임 작가는 굴껍질, 무명실, 와이어, 자석을 사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본 전시에서는 김순임 작가의 <굴 땅 2017> 전시를 소개합니다. 김순임 작가는 <굴 땅>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관람객 여러분께, [Oyster Land](#) 전시 ▶) 김순임 작가는 굴껍질, 무명실, 와이어, 자석을 사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김순임 작가는 굴껍질, 무명실, 와이어, 자석을 사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은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 E1 창고갤러리 입구

문화 콘텐츠 유통 플랫폼 <창고 2017>

주소: 인천광역시 E1 아트플랫폼

기간: 2018년 3월 15(목) ~ 3월 29(목) 12~18시(매주 목요일)

시간: 오전 12시 ~ 오후 6시, 입장료 무료, 주차 무료, 장애인 주차 공간 15개

문의 / 후원 3.0 문화 플랫폼, 인천 (문의 링크 >)

문의 / 후원